

【 4 】 조 활동 보고서

인적 사항	조장	문민지
	조원	권진수, 박승진, 박재형, 박현지, 유정현, 정은비
활동기간		2020.01.07.(화) ~ 2020.01.09.(목)
활동장소		베트남
활동목적		현지 조사에 따른 해당국의 이해와 학습효과 극대화
추진일정 및 경과		
	일시	내역
	2020.01.07.(화) 10시	<p style="text-align: center;">베트남 하노이 대학교 친구들과 교류회</p> <p>한국인 7명, 하노이 대학교 대학생 2명이 함께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 서로 좋아하는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한 얘기도 했으며, 우리가 모르는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했다. 베트남 친구들이 한국어를 매우 잘해서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항상 우리의 얘기를 경청해줘서 더욱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High land café'에 함께 방문, 교류를 계속했다. High land café는 하노이, 다낭, 호치민, 하이퐁 등 전 지역에 233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유명 체인점 카페다. 베트남 소비자의 '평균 값'에 최적화한 모델이며, 중산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음료 및 가격 정책을 겨냥한 카페다. 친구들은 이 카페에서 연꽃씨차와 freeze Tra Xang Moi(그린티 프라푸치노)가 유명하다고 알려줬다.</p>
	2020.01.07.(화) 18시	<p style="text-align: center;">하노이 롯데마트 구경</p> <p>롯데마트는 국내 유통업체 최초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다. 현재 베트남 내에 호치민, 다낭, 나트랑 등 14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그 중, 우리는 가까이 있던 하노이 지점을 방문했다. 베트남에서 한국식 마트를 접목해 복합 쇼핑물 형태로 음식점과 마트, 문화·편의시설이 함께 갖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쇼핑리스트에는 코코넛 카푸치노, 코코넛 크래커, 베트남 컵라면과 쌀국수, 말린 망고 등이 가장 많았다.</p>
	2020.01.07.(화) 20시	<p style="text-align: center;">하노이 구시가지, 맥주 거리에서 저녁</p> <p>베트남의 대도시에는 '여행자의 거리'라고 불리는 관광객들을 위한 지역이 있다. 이 거리에는 주로 저렴한 호텔이 위치하고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 베트남을 방문한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을 만날 수 있다. 하노이에서도 이런 여행자 거리가 있는 지역이 몇 곳 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하노이의 구시가지다. 이 구시가지 내에는 36개의 크고 작은 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그 중, 유독 하노이 맥주거리라고 불리는 짧지만, 관광객들로 늘 붐비는 작은 길이 있</p>

		<p>다. 이 길이 유명한 이유는 과거 하노이의 비어 호이 (BIA HOI) 라고 불리는 베트남 생맥주의 양조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양조장은 없어지고, 대부분 식당과 상가로 바뀌었지만,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맥주를 마실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지인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방문한다. 일반적인 펍에 비해 하노이 맥주거리만의 특징은 테이블 없이 길거리에 목욕탕 의자를 놓고 앉아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노이 맥주거리를 구성하는 식당과 펍은 약 300m정도 이어져 있으며 저녁에는 가게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과 현지인이 맥주를 즐기는 곳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음식과 맥주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했다.</p>
	<p>2020.01.08.(수) 15시</p>	<p style="text-align: center;">하노이 현지 식당에서 점심 식사</p> <p>남딘에서의 현지 기업방문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하여 호아로 형무소 근처의 로컬식당을 갔다. 여러 식당을 둘러보면서 발견한 하노이만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거의 모든 음식점에서 쌀국수, 커피, 차,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가지는 공통점은 모두 베트남이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수출 품목이라는 점이다. 참고로,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차는 5위, 쌀은 세계 3위의 수출국이다. 조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어서, 많은 베트남 현지 음식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베트남의 음식들이 베트남 특유의 기후문제 때문에 향을 강하게 첨가하다 보니 한국에서의 음식들과 많이 다른 느낌이 들었다.</p>
	<p>2020.01.08.(수) 16시</p>	<p style="text-align: center;">하노이 호아로 형무소 방문</p> <p>호아로 형무소는 우리나라의 서대문 형무소와 매우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다. 호아로 형무소는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 지배자들이 건설한 감옥으로 대부분 정치범을 수용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베트남이 독립한 후에는 베트남 전쟁 동안 미군 포로들을 수용하는 데 사용되었다. 감옥은 두터운 노란색 돌로 지은 건물들 안에 있었다. 감옥 안에서는 처음에는 프랑스인들이, 그 뒤에는 베트남인들이 죄수들을 고문하고 학대하였다. 지금의 호아로 형무소는 싱가포르 사업가들이 하노이 타워를 짓기 위해 대부분 헐어 버렸고,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프랑스 지배하에 베트남인들이 고통받았던 상황에 대부분 초점을 맞춘 박물관이 되었다. 박물관 안에는 당시에 죄수들이 입었던 죄수복, 먹었던 음식, 생활했던 감옥, 실제로 사용했던 단두대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남녀, 노인, 아동 가릴 것 없이 다 수용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수용소를 둘러보면서 베트남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p>

<p>2020.01.08.(수) 17시</p>	<p style="text-align: center;">하노이 판스 사원 방문</p> <p>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다. 그래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사원들이 일반 주택들 가운데 위치한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판스 사원도 길거리에 있는 사원 중 하나였는데, 앞에는 향 등을 팔고 있고 사람들은 그 향을 사서 불을 붙여 여러 군데의 향로에 꽂아 놓고 간절히 소원을 빈다. 판스 사원은 베트남 왕의 초청으로 여러 나라에서 온 사신들을 영접하기 위해 15세기에 지어졌다가 불탑을 지으면서 사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중간에 불에 타서 한번 소실 되었던 적이 있지만, 재건하여 현재는 베트남 불교 연합의 본부이고, 수도승들이 기거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다. 절의 내부에는 동상(불상)이 있고 밖에는 석탑과 향로가 놓여 있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 다른 절을 갔었을 때도 느꼈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절에서 기도하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사람들이 간절하게 절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p>
<p>2020.01.08.(수) 18시</p>	<p style="text-align: center;">하노이 성 요셉 성당 방문</p> <p>성 요셉 성당은 예수의 아버지인 성 요셉의 이름을 따서 프랑스의 선교사이자 통킹의 주교였던 폴 프랑수아 푸지니에에 의해 1886년 12월에 완성된 성당이다. 1872년 프랑스는 하노이를 점령하고 10년 동안 장악한 후 이 성당을 세웠다. 이 건축물은 화강암 석판과 콘크리트로 지어졌으며, 고딕 복고풍의 신고딕 양식으로 지어졌다. 그렇기에 창문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달려있고, 대부분이 뾰족한 아치 모양으로 지탱되고 있다. 성당의 앞에는 ‘평화의 여왕’이라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 성당을 지은 건축가들은 파리 노르트담 대성당을 모방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그 흔적으로 각 탑에 쌍둥이 종탑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이 성당 자리에는 11세기 리 왕조 시기에 만들어진 통킹의 행정을 담당하던 불교사원 바오틴엔탑(報天塔)이 있었는데,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이를 폭파시키고 성 요셉 성당을 지었고, 1886년 12월 24일에 봉헌되었다. 프랑스 식민 통치 시기에는 프랑스의 성당으로 잘 쓰였으나, 베트남의 독립 이후, 프랑스 식민 통치의 상징으로 여겨져 수십 년 동안 성직자가 체포되거나 교회의 재산이 몰수되는 등 박해를 받았으며, 1990년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폐쇄되었다. 현재는 관광지로서 쓰이고 있으며, 베트남이 발전하면서 지어진 현대식 건물과 베트남 왕조 시절에 지어진 전통적인 건축물들 사이에서 관광지로서 독특하게 공존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도착한 시간이 성당 개방 시간보다 늦게 도착해 내부는 보지 못했지만, 겉의 성 요셉 성당을 보면서,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p>

		<p>계기가 되었다.</p>
	<p>2020.01.08.(수) 19시</p>	<p style="text-align: center;">하노이 현지식당에서 저녁 식사</p> <p>마지막 밤이 아쉬워서 우리는 조금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베트남 하노이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호안끼엠 호수는 역사적인 유적지로써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탁 트인 호수 경관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이러한 호수 주변에는 경치를 구경하게 해줄 수 있는 장소도 모이기 마련이다. 다이아몬드 스카이 바 또한 이러한 루프탑 카페/바의 한 종류이다. 비록 다른 바에 비교해 시장골목으로 더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번잡한 길을 뚫고 들어가면 탁 트인 야경을 마주할 수 있다. 특히 밤이 되면 이곳은 호안끼엠 호수의 야경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다. 고층 빌딩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바텐더가 손수 만들어준 칵테일을 마시다 보면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이곳에서 쓴 만큼 돈을 쓰면 몇 배는 더 마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 호수의 풍광과 바텐더의 정성이 만들어낸 감성 혹은 추억을 사기 위해 돈을 흔쾌히 지불했을 것이고, 이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에 하노이의 복잡함 그 위에서 느낀 단순함이 주는 쾌감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었다.</p>
	<p>2020.01.09.(목) 12시</p>	<p style="text-align: center;">하노이 현지 식당에서 점심 식사</p> <p>점심으로서는 서호 근처의 음식점에서 베트남의 전통음식을 먹었다. 그 중 짜조는 군만두와 비슷한 음식으로 라이스페이퍼에 당면과 부추, 양파, 버섯, 당근과 같은 다양한 야채를 넣고 기름에 튀겨 만든 음식이다. 만두와 마찬가지로 다진 고기를 추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가 방문한 식당에서는 채식인을 위해 고기를 넣지 않는 버전도 선택할 수 있었다. 속이 적고 라이스페이퍼가 얇은 까닭인지 한국의 군만두보다 겉이 바삭한 식감이 특이했다. 다만 튀김 요리답게 기름기가 많아 한 번에 많이 먹기는 부담스러웠다. 또한 pho[퍼]도 먹었다. 퍼는 뜨거운 육수에 쇠고기, 소의 내장 약간, 얇게 저민 고기를 얹은 다음 국물에 말아서 먹는 음식으로 한국에서는 베트남 쌀국수, 포로 유명하다. 본래는 베트남에서는 쌀국수에 고기를 넣지 않았지만,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든 프랑스인들이 쌀국수를 먹어보고는 고기가 없어서 아쉽다고 하여 고기를 넣게 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p>
	<p>2020.01.09.(목) 13시</p>	<p style="text-align: center;">하노이 현지 카페 방문</p> <p>우리가 자유일정을 소화한 1월 9일의 경우, 날씨가 26도를 넘어갈 정도로 더운 날이었다. 그래서 조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카페를 방문해서 더위를 식히고, 다시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조원 대부분이 '코코넛'이 들어간 음료를 선택했다. 실제로 코코넛이 들어간 음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코코넛이 들어간 커피의 경우 베트남에 관광 왔을 때, 꼭 마셔봐야 하</p>

		<p>는 커피로 유명하기도 하다. 또한, 음료로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코코넛 물도 있다. 싱겁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살짝 달콤하고 담담한 맛으로 입가심하기에 좋았다. 카페는 카페 아바나라는 곳으로 쿠바와 카스트로를 콘셉트로 한 단란한 식당이었는데 녹색을 바탕으로 한 인테리어와, 산뜻한 디자인의 가구들이 보기 좋았다. 다만 관광지 주변 상점의 특성상 음식의 가격은 시내 다른 지역의 식당들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p>
	<p>2020.01.09.(목) 14시</p>	<p style="text-align: center;">하노이 찐꾸옥 사원 방문</p> <p>찐꾸옥(鎭國) 사원은 하노이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찰로서, 시 북부의 서호(西湖)에 떠있다. 6세기 리남제 제위기간에 본디 홍강(紅江)변에 지어졌지만, 17세기 홍강이 범람하고 나서 지금의 위치인 서호의 킴응우 섬으로 자리를 옮겼다. 베트남에 중국으로부터 선종이 유입된 것은 6~7세기로 파악되므로, 이 사원은 베트남 불교의 역사와 시작을 같이한 셈이다. 중국으로부터 지배적인 영향을 받은 다른 사회정치적 측면들과 유사하게 베트남 불교 역시 지리적으로 더욱 밀접한 인도차이나반도 내 타국의 불교보다 중국의 대승불교와의 유사성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사원의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인 베트남 건축양식을 드러내고 있는 이 사원은 목재와 석재를 혼합하여 지어졌으며, 공간 구성과 기와 처리 역시 중국의 영향을 드러낸다. 처마 끝의 굴곡은 한국의 전통 건축물에서보다 더욱 급격하며, 건물들을 채색한 주요색은 번영과 행운을 상징하는 붉은색이다. 한국의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혹은 미륵보살의 세 불상을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찐꾸옥 사원을 포함하여 베트남의 사찰 본당은 예배 공간보다 불상이 놓인 공간이 더욱 깊어, 전면의 세 불상 말고도 예배자의 인접이 불가능한 뒷 공간에 다른 불상들이 배석되어있다.</p>
	<p>2020.01.09.(목) 15시</p>	<p style="text-align: center;">하노이 콩카페 방문</p> <p>모든 조원들이 가고 싶어 했지만, 전 날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했는데, 찐꾸옥 사원 주변에 있어서 더운 날씨에 목을 축일 겸 다 같이 카페로 향했다. 콩 카페는 베트남에서 정말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로, 현지인보다는 외국인이 더 많이 있는 카페다. 실제로 이 카페를 가보면 한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다. 그 중 특히 커피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 콩 카페이다. 베트남의 80년대를 모티브로 하여 인테리어가 구성되어있고, 커피 자체도 맛있어 베트남 정서가 가득 담긴 중요한 관광지가 됐다. 최근 한국에서 콩 카페의 커피가 제품으로 출시됐고 이 역시 반응이 좋다.</p>
	<p>2020.01.09.(목) 16시</p>	<p style="text-align: center;">주석궁 & 바딘 광장 & 호치민 묘소 & 못꼳사원</p> <p>주석궁, 호치민 묘소, 바딘 광장, 못꼳사원은 모두 10분 거</p>

리에 붙어있으며, 테리의 위험 등으로 인해, 먼저 짐 검사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먼저, 주석궁은 프랑스 건축가가 건축한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로 1908년 완공,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의 사저로 쓰인 곳이다. 프랑스가 물러난 후 바로 주석궁으로 쓰려 했으나 호화스러운 것을 싫어했던 호찌민이 거부하면서 비어 있었다고 한다. 내부는 일반인들에게 비공개라 들어갈 수 없었다.

호찌민 묘소는 1969년 하노이에서 사망한 호찌민을 위해 1975년 완공된 무덤으로 화강암과 대리석을 이용해 3층 규모로 건설되었다. 정면에 적힌 문구는 ‘호찌민 주석’이라는 의미로, 무덤 내부에는 호찌민의 시신이 살아있을 때 검소한 복장 그대로 보존되어 안치돼 있다. 또한, 경호가 매우 삼엄했다. 아예 주변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곳곳에 경찰들 또는 군인들이 서 있었고, 장난스러운 행동을 하면 제재를 받기도 했다. 묘소 바로 앞에는 바딘 광장이 있다. 원래 하노이 고성의 서쪽 출입문이 있던 자리였는데 프랑스가 식민지배를 하는 동안 성벽과 문을 부수고 꽃 정원을 만들면서 생긴 공간이다. 또한, 호찌민이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의 독립을 선포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호찌민 묘소와 바딘 광장 건너편엔 새로 지어진 베트남 국회 건물이 있다.

마지막으로 못꼳 사원은 1049년 건설된 사찰로 사원의 기둥이 하나라 ‘일주사’라고도 불린다. 자식이 없던 리타이퐁 황제가 관음보살에게 아기를 점지받고 자식을 낳게 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건설해, 사원의 모양은 꿈에서 보았던 연꽃 연못 위의 연꽃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한다. 사원의 기둥은 원래 지름 1.25m 정도의 나무기둥이었으나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군이 파괴하여 1954년 시멘트 기둥으로 재건축하였다. 못꼳 사원 바로 옆에 호찌민 박물관도 있다.

		<p>리에 붙어있으며, 테리의 위험 등으로 인해, 먼저 짐 검사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먼저, 주석궁은 프랑스 건축가가 건축한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로 1908년 완공,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의 사저로 쓰인 곳이다. 프랑스가 물러난 후 바로 주석궁으로 쓰려 했으나 호화스러운 것을 싫어했던 호찌민이 거부하면서 비어 있었다고 한다. 내부는 일반인들에게 비공개라 들어갈 수 없었다.</p> <p>호찌민 묘소는 1969년 하노이에서 사망한 호찌민을 위해 1975년 완공된 무덤으로 화강암과 대리석을 이용해 3층 규모로 건설되었다. 정면에 적힌 문구는 ‘호찌민 주석’이라는 의미로, 무덤 내부에는 호찌민의 시신이 살아있을 때 검소한 복장 그대로 보존되어 안치돼 있다. 또한, 경호가 매우 삼엄했다. 아예 주변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곳곳에 경찰들 또는 군인들이 서 있었고, 장난스러운 행동을 하면 제재를 받기도 했다. 묘소 바로 앞에는 바딘 광장이 있다. 원래 하노이 고성의 서쪽 출입문이 있던 자리였는데 프랑스가 식민지배를 하는 동안 성벽과 문을 부수고 꽃 정원을 만들면서 생긴 공간이다. 또한, 호찌민이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의 독립을 선포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호찌민 묘소와 바딘 광장 건너편엔 새로 지어진 베트남 국회 건물이 있다.</p> <p>마지막으로 못꼳 사원은 1049년 건설된 사찰로 사원의 기둥이 하나라 ‘일주사’라고도 불린다. 자식이 없던 리타이퐁 황제가 관음보살에게 아기를 점지받고 자식을 낳게 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건설해, 사원의 모양은 꿈에서 보았던 연꽃 연못 위의 연꽃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한다. 사원의 기둥은 원래 지름 1.25m 정도의 나무기둥이었으나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군이 파괴하여 1954년 시멘트 기둥으로 재건축하였다. 못꼳 사원 바로 옆에 호찌민 박물관도 있다.</p>
수행결과	일시	사진
	2020.01.07.(화) 10시	<p style="text-align: center;">베트남 하노이 대학교 친구들과 교류회</p> 

하노이 롯데마트 구경

2020.01.07.(화)
18시



하노이 구시가지, 맥주 거리에서 저녁

2020.01.07.(화)
20시



하노이 현지 식당에서 점심 식사

2020.01.08.(수)
15시



하노이 호아로 형무소 방문

2020.01.08.(수)
16시



하노이 판스 사원 방문



2020.01.08.(수)
17시

하노이 성 요셉 성당 방문



2020.01.08.(수)
18시

하노이 현지 식당에서 저녁 식사



2020.01.08.(수)
19시

하노이 현지 식당에서 점심 식사



2020.01.09.(목)
12시

하노이 현지 카페 방문



2020.01.09.(목)
13시

하노이 쩐꾸옥 사원 방문



2020.01.09.(목)
14시

하노이 콩카페 방문



2020.01.09.(목)
15시

주석궁 & 바딘 광장 & 호치민 묘소 & 못꼳사원



2020.01.09.(목)
16시

